무화가 나무 아래서 (요한 1:43-50)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조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몇일 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로 부터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기 시작을 하는 한국 상황을 알려 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은 더 걸려야 된다고 하는 한국 전문가의 말을 들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2년은 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끔직하다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 힘이들고 벅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조차 힘이 들때가 있지요. 우리들이 지난 4주간 “배나기 모임”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신앙과 감리교 믿음, 정신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 보았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목회자가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낙망하지 말고, 당신이 믿을수 있을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 하십시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찌라도, 주님의 임재 하심과 역사 하심을 위해 계속 기도 할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 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기록의 말씀 입니다. 우리들이 공관 복음서를 보며는,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실때,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는, 야고보와 요한 대신에 빌립과 나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 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바돌로메에 관한 사실들을 알수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여행을 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알려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도 했고, 나중에는 인도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제자

**P. 2**

였습니다. 그리고는 Armenia에서 전도하던 중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꺼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대해 굉징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함께 가지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 당시 나사렛은 아주 작은, 보잘것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은, 그렇게 초라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 –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나다니엘은 의롭고 정의로운, 그 속에 거짓이 없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은, 정의롭고, 의롭고, 거짓이 없는, 그 당시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러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하신 이 말씀 때문이였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2번).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 이전에 벌써 나다니엘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 입니다.

구약의 전통에 있어서, 무화가 나무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며 쉼을 얻는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무화가 나무는 자라서 성장을 하면 20 feet가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그늘을 만들어서Palestine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역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하고, 나 혼자 들고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든 문제들이 그들의 삶을 짖누르고 있을 때 – 무화가 나무 아래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쉼을 얻고 가곤 했습니다.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무화가 나무 아래서 보았을 때에도, 나다니엘은 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러 그곳에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위해 찾아갔던 장소 –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그 무화가 나무를 remind 시키고 계신 것 입니다. 그 때,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더 이상의 설명이 없이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무화가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위해 기도 하는 장소 – 우리들만의 “무화가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는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 무화가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P. 3**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가 나무 아래 있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 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은혜”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은혜” –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 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회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십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 까지 함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던지 다 받게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 입니다.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로 사랑하라.” 우리들은, 작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랑의 열매는 크고 어마어마한 것 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컵을 대접하는 것” 임을, 우리들은 마캐복음 25장 40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날의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 -standard에 길 드려져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잃어버렸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찮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이해하는 사람들만 이해하려하고, 우리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만 표용하려 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배나기 모임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얼마전에 뉴스 방송인 CNN 아시아 본부에서 “Power of One”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캠패인의 목적은, 한 사람의 힘이 이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테레사 수녀와 아시아 오지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젊은 이들을 소개하는 그런 캠패인이였습니다. 사실, 세상을 바꾸는데 한 사람의 노력과 힘을 무시 하지 못합니다.

**P. 4**

테레사 수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하루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칼커타의 한 빈민가에서, 어떤 사람의 몸을 닥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몸이 아주 더러운, 그리고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사람이였는데, 테레사 수녀는 그런 사람을 장갑도 끼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닥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에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나는 백만불을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몸을 닥지 않을 것 입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나도 나혼자는 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할수가 없는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였습니다.

예 수드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 시킬수 있고, 또 이 세상과 우리 주위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들의 “무화가 나무 아래” 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우리를 기디라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 할수 있습니다.